

광양만권 ‘K-배터리 공급망’ 핵심거점 육성 속도

국회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포럼’
정부 배터리삼각벨트 구상 필요성 공유
내년 2월 공모 마감…지정 여부 ‘촉각’

전남도가 광양만권을 K-배터리 공급망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지자체 관계자, 기업,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포럼’을 개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월28일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호남·영남·충청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해 호남을 핵심광물(원료)과 양극재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 같은 정부 산업정책 방향에 맞춰 광양만권을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원료·소재 생산 기지이자 신규 특화단지 후보지로 구체화하기 위한 육성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요 내빈, 참석자들과 함께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참석자들은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가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외 동향’, 정기영 순천대 교수가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육성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회에서는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모색했다.

전남도는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2023년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세·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전남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전남도-SK그룹, AI 데이터센터 협력 본격화

金子사, 정석근 AI CIC 대표 면담

인프라 조성·후속 추진 방향 논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22일 전남도 서울중앙협력본부에서 정석근 SK텔레콤 AI CIC 대표를 만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포함한 AI 인프라 협력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석근 대표는 SK텔레콤의 AI 전략 실행을 총괄하는 AI CIC 초대 대표다. 분산돼 있던 AI 전담 조직을 일원화해 SK그룹 차원의 AI 전략 수립과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3일 ‘SK AI SUMMIT 2025’에서 김영록 지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한 이후 이어진 후속 면담이다. 지난 10월1일 발표된 오픈AI-SK그룹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서 전남도와 SK텔레콤 AI CIC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조성 방안과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지원과 향후 후속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전남을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육성해 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례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전남도는 SK텔레콤 AI CIC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행정·전력·부지·인허가 등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지원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는 단순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라며 “전남도-중앙정부-SK그룹 3자 협업체를 구성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AI 핵심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도, 여객기 참사 1주기 합동분향소 운영

전남도는 22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1주기를 맞아 29일까지 8일간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희생자 추모 도민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6면

전남도청 1층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도민 누구나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다. 전남도는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는 동안 안내 인력을 상시 배치할 계획이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분향소는 여객

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과 이웃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에 도민들이 함께 아파하고 연대하는 의미를 담아 운영한다”고 말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은 국토교통부와 유가족협의회 주관으로 오는 29일 오전 10시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시원 기자

영암 출신 이진태 “李정부 성공 뒷받침”

민주 최고위원출마…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진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이 22일 광주를 찾아 “광주·전남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영암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이 낳고 광주가 키운 사람으로서 이곳에서 출마 인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 현안에 대해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통합이전은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이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공항 이전 절차가 차질 없이 진



행되도록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전남이 농생명·AI·신재생에너지 허브로 성장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 광주·전남 출신 선출직 최고위원이 없다”며 “보궐선거 후보자 중에서도 광주·전남 출신은 저 이진태가 유일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과 당을 잇는 가장 밀착된 소통의 통로가 되겠다”며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멈춤 없는 검찰·사법개혁으로 광주·전남 시민들의 요청에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1면 ‘목포대·순천대 통합’서 계속

이어 특위는 “통합 찬반 투표는 단순한 내부 의견 수렴을 넘어, 대학 구성원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전남의 통합 의지를 정부와 교육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목표로 한 27년 개교를 위해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대학·지자체·정치권·지역사회가 ‘원팀’으로 협력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위는 “통합의 열쇠는 양 대학 구성원이 쥐고 있다”며 “양 대학 구성원의 협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참여가 전남 국립대의 설립과 전남의 미래를 앞당기는 결정적 힘이 될 것”이라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네”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
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혼아
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
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
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
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 대 ☐ A/S

T.375-5880

1) 꼬마상가 2억7,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변 코너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매수즉시 사용가능(1층 점포4칸)주차4대

2) 양산동 주거1종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가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62)719-3380, 010-8678-4638

CMYK